

백석을 찾아가는 쌀 뒤주 사업

저소득층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전개

백석을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덕영)에서는 읍사무소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상호부조 및 주민 연대감을 형성하고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찾아가는 쌀 뒤주’ 사업은 일시적인 물품지원을 탈피하여 민간자원의 상시적 동원을 통해 고객 중심의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본 사업을 위해 현재 2000kg의 쌀을 백석을 기관단체 및 기업체, 주민들에게 기부 받아 어려운 상황 정도에 따라 1세대 당 10 ~ 20kg 정도의 쌀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접수자 40세대에 총 400kg의 쌀을 배부하기도 했다.

백석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같은 사업이

계속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건물 내에 찾아가는 쌀 뒤주 신청함과 메모지를 비치하여 어려운 주민 본인 또는 이웃이 거주지와 연락처, 어려운 사정을 적어 넣은 메모를 접수할 시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기도 한다.

특히 백석을 직원들이 바쁜 일과 중에 주말을 이용해 지난 일년동안 농사 짓은 쌀 전량(570kg)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섣달 내놓아 이웃사랑 실천에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흐트란 풍경을 자아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쌀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연중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쌀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백석을 주민자치위원회는 읍사무소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상호부조 및 주민 연대감을 형성하고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행복한 연천 만들기 후원단

저소득층 학생행복맞춤 사랑의 교복지원

행복한 연천 만들기 후원단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교 입학 학생 86명에게 1500만원 상당의 ‘행복맞춤, 사랑의 교복지원’ 행사를 추진중이다.

‘행복한 연천 만들기 후원단’은 지난 2007년 9월 (기업체, 의원, 약사회, 종교단체, 자영업자 등) 36개소의 민간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활동 중이며 급변 ‘행복 맞

춤, 사랑의 교복지원’에는 독지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여성단체, 지역사회단체, 공무원 등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연천을 만들기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더욱이 ‘행복맞춤 사랑의 교복지원’은 교복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교복이 오히려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교복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

응을 얻고 있다.

이에 연천군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시책을 내놓게 됐다며 이웃사랑 모금 성금을 활용한 다양한 복지 시책을 확대해 나갈 뿐 만 아니라 민·관협력이 바탕이 된 건전한 기부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연천군 지방자치활성화 논의

지방분권 정책으로 정부 권한 이양에 맞춰

연천군은 지방자치활성화와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 되고 있고, 민간부문의 복지 참여도가 확대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연천군은 지방자치활성화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내 복지·보건 분야 등의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내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과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14일, 전곡읍 소재 여성회관 2층 회의실에서 실무협의회 위원 27명과 함께 2008년도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종합적인 주민복지향상, 복지지원 활용의 효과성 제고, 민·관 협력 통합 서비스 연계 기반 마련을 위해 ‘2007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연천교육청 유치원 교원과정 연수

유아가 행복하고 즐거운 유치원 만들기

경기도연천교육청은 12월 13일(목) 15:00~18:00까지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 사립 유치원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원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는 유아가 행복하고 즐거

운 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신바람 나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방안과 감동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이루어졌다.

‘유치원에서의 효 교육’이란 주

제로 교육과정 연수를 한 서양자 전곡초병설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에서의 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가족화가 가속화되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가정에서 일찍부터 이루어져야 할 인성교육이 그 시기를 놓치고 있다. 유치원에서 효 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도모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활동이므로 효를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인간을 키우는 교육에 유치원이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였다.

2007 유치원 수업실기대회에서 2등급을 받은 연천초고문분교병설유치원 신영숙 교사는 ‘유치원 좋은 수업 만들기’ 사례발표에서 신바람 나는 학급 운영을 위한 지침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갖기, 칭찬으로 친구와 나를 행복하게 하기,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기본생활 습관 지도 등을 예로 들며 2007 수업실기 대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치원 학급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발표한 전곡초병설유치원 이경림 교사와 백의초병설유치원 김형분 교사는 학급교육과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학급특성화 교육, 부모교육, 유초연계교육, 전통문화 계승교육 등에 대한 운영과정을 발표하였고 지난 학급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감동을 주는 종일반 교육’ 사례발표를 한 상리초병설유치원 이연숙 교사는 가정처럼 편안한 종일반 환경구성과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방법의 노하우를 발표했다.

양기석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복수가 일이 없을 때 연장을 갈듯이 우리 교사는 시간을 쪼개어 자기 연천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오늘 연수가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유치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교사,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듬뿍 나누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조성초병설유치원 박혜정 교사는 “이번 교육과정 연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도 이런 연수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경기도연천교육청은 12월 13일(목) 15:00~18:00까지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 사립 유치원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원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했다.

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보고회 개최

‘YES 연천 명품방과후학교 페스티벌’

경기도연천교육청(교육장: 양기석)은 12월 11일~12(수) 연천군민회관에서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연천군청 및 군의회 관계자 400여명을 모시고 2007 YES 연천 명품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페스티벌은 2007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성과를 분석하는 성과보고회에 이어서 각 학교별 명품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발표회와 권역별 작품 전시회가 이틀에 걸쳐 펼쳐졌다.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즐거운 학교, 행복한 후학을 만들어 온 ‘YES(Yeoncheon Education is Special) 명품 연천방과후학교’는 말 그대로 특별하고 차별화된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왔다.

지난 4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교육부와 연천군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방과후 활동으로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여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학부모와 지역주민 참여가 확대되면서 연천교육에 대한 희망과 신뢰가 한층 커지게 된 것이다.

방과후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초등 보육보급자리 프로그램과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권역별 순회 강사 활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생들의 특기 신장과 학교의 명품 브랜드를 창출하는 1교 1특성화 프로그램, 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연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는 소외지역의 교육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

양기석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방과후학교는 우리 농촌학생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연천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 방과후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꿈을 펼쳐가는 장이 될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명품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온 학교장들과 교사, 강사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준 지자체 기관장께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김규배 연천군수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학생들에게 달려 있다. 꿈과 비전을 갖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는 학생들이 있어 마음 든든하다. 연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산어촌방과후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미래비전 담긴 브랜드 슬로건 공모

동두천시 지방화 시대 경쟁력 강화 차원

동두천시는 도시의 매력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무한경쟁의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성과 미래비전이 담긴 『브랜드 슬로건』을 20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내용은 경기의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소양산과 탐동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수도권의 일일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며 미군 재배치에 따른 미군공역지 조기반환 등 개발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임을 구호 형태의 짧은 한글 또는 영어 문구 형식으로 동두천시

의 매력을 집약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길 방향이 담겨 있는 독창적이면서 산뜻한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우편(우483-708 경기도 동두천시 시청길 27) 또는 동두천시 홈페이지(www.ddc21.net) “동두천시 브랜드슬로건 공모” 배너 접속을 통해 이달 20일까지 접수한다. 응모는 1인 1점으로 한정하며, 이미 등록 및 등록 추진 중 슬로건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양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회

22일과 29일 양일간 양주지역에서

전문 연주인들로 구성된 교향악단인 양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에게 뜻있는 문화의 밤을 선사하고자 오는 22일, 29일 2일간에 걸쳐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22일 오후 6시에는 백석고등학교 강당에서 정기연주회를 29일 오후 6시에는 덕정중공업파라다이스 인근에 위치한 행진교회에서 양주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갖는다.

백석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음악회는 주제의 “시인과 농부 서곡”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등 정통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 우리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클래식 음악을 교향악단 연주를 통해 현장에서 맛볼 수 있게 된다.

덕정중 행진교회에서 개최되는 양주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는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연주곡과 시립합창단의 협연, 성악가들의 솔로 연주 등으로 구성되었다.

브람스의 헝가리무곡, 베토벤의 뮤지컬리스트사이드스토리 등의 오케스트라 연주곡을 비롯해서 “오 나의 태양”, “동심초” 등의 솔로 성악곡과 마법위성, 베토벤의 “환희의 합창” 등의 합창곡을 시립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연주된다.

이번 연주회는 정통 클래식을 비롯해 가곡, 뮤지컬음악, 합창곡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구성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가족과 함께 참여하면 뜻있는 연말이 될 것이며 자녀들에게도



전문 연주인들로 구성된 교향악단인 양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아 22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산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주시 문화체육과 031-820-2102번으로 하면 된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경기도연천교육청 연천군민회관에서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연천군청 및 군의회 관계자 400여명을 모시고 2007 YES 연천 명품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을 개최했다.